

中共의 經濟開放, 從屬理論과 第3世界

李 天 构*

<目次>	
I. 서	IV. 중공개방의 제3세계에 대한 시사
II. 중공의 경제개혁과 경제개방	V. 여언
III. 종속이론의 관점에서 본 중 공의 경제개혁	

I. 序

中共은 人口 10억이상을 가진 人口大國이다. 동시에 中共은 共產主義國家이고 先進國이 아닌 開發途上國이다. 이러한 중공은 鄧小平이 주도하는 實用主義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후, 1978年 12月에 있었던 黨 11期 3中全會를 계기로 하여 종래 文化革命의 오류를 비판하고 난 다음, 現代化 計劃을 추진하고 經濟改革을 기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經濟改革은 經濟開放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때의 經濟開放이란 갖가지 經濟特區를 설치하여 非共產主義的要素인 市場經濟를 실험하고 外國의 資本과 技術을 받아들이는 창구로서 活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國際的 交易이 있게 되면 소위 交易의 利益이 있게 되고, 이것이 交易의兩當事國에 配分되리라고 여겨지지만, 이러한 配分이 雙方 사이에서 公平하게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國際的 交易의 結果로서 나타난 이익이 대부분 富國인 先進國에 귀속되고, 開發途上國에 귀속되는 작은 部分도 上部層의 소득만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 開發途上國 내부에서는 二重性이 심화되면서 대외적으로는 對外依存이 심해지고, 심하게 되면 從屬의 처지에 전락하게 한다는 觀察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開發途上國의 經濟開放은 翁翁 종속으로의 첫걸음이 되기도 했다.

中共은 과거 19세기 말경부터 自意的은 아니나마 開放되었고 제국주의 세력

* 서울대 사회대, 국제경제학

에 의한 유린을 經驗해 본 나라이다. 다른 나라의 植民地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大國이면서도 사실상 部分的이나마 植民地狀態에 처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中共은 經濟開發을 폐함에 있어서도 對外依存을 最小化하려는 성격을 本來의으로 지니게 된 나라이다.

人口大國이면서 潛在的 大國이라는 性格과 開放에 따른 對外依存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는 이러한 性格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의 中共의 經濟開放도 中共으로 하여금 開放의 利益은 贸易할 수 있게는 하되, 결코 從屬으로 전락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經濟開放과 國際交易이란 어떤 한 나라의 意思대로만 진행될 수는 없는 것이다. 開放을 하다보면 從屬을 경계하여 고집하던 原則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 中共이라고 반드시 樂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中共은 전에는 外國으로부터 資本을 導入함에 있어서 直接投資를 적극 회피하고 借款의 方式을 고집해 왔었으나, 근년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고집을 끊고 直接投資를 허용하게끔 변모되었는 바, 이것이 하나의 變數가 될지도 모른다.

經濟開放을 하면서 開發途上國이 그의 의사와 고집을 지탱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설사 潛在的 大國인 中共이라고 하더라도 開放과 더불어 從屬에 근사하게 이행해 갈 可能性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이하에서는 中共의 經濟改革 내지 經濟開放의 내용을 간단히 검토하고, 다음 그것을 從屬理論의 視角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며 中共이 經濟開放을 함에 따라 從屬으로 치닫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中共의 經濟開放努力이 第3世界에 대해 어떠한 意味를 가지게 되는지를 全世界的·大局的 關心을 잊지 않으면서 짐작해 본다.

II. 中共의 經濟改革과 經濟開放

中共의 經濟改革은 “활기에 찬 社會主義體制를 수립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고 서술되는데, 企業의 活力を 강화하여 계획체제의 범위내에서 사회주의의 商品經濟를 發展시키는 것을 주된 目標로 하고 있다. (高橋滿, 1986)

이를 위하여 經濟的 자랫대 役割을 할 수 있도록 合理的인 價格體制를 수

립하고, 行政機構와 企業의 責任과 業務를 分擔하여 經濟에 대한 관리기능을 正常화하고, 진정한 分配法則에 따른 勞動등에의 分配分을 관찰하며, 새로운 人材를 기용하고, 여러가지의 經濟형태를 발전시키므로써 對外·對內의 經濟技術交流를 한층 확대한다는 것 등을 그것의 구체적 内容으로 가지고 있다.

中共은 本來의으로 共產主義國家이기 때문에 企業家의 創意에 바탕을 둔 企業家活動(entrepreneurship)을 否認해 온 나라이다. 동시에 平等主義를 신봉하여 勞動에 대한 보상의 差別化를 抑制하므로써 근로자들의 自發的 參與와 努力を 충분히 유발시키지 못한 쳐지이다.

이러한中共이 1978年 이래 實用主義노선을 채택하면서 過剩人口의 壓力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經濟發展을 하려고 하다 보니, 우선은 資本主義의 誘引制度(incentive system)를 한정적이나마 도입하려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1970年代 經濟成長에 상대적으로 成功的이었던 開發途上國이 海外市場을 活用하는 對外志向의 成長戰略을 택한 때문에 그리 되었다는 評價에 임하여,中共 스스로도 經濟開放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中共의 經濟開放의 形式的 근거는 1978년 12월 中國共產黨 第11期 中央委員會 第3回 全體會議에서 채택된 「4大近代化路線(農業, 工業, 國防, 科學技術)」에서 찾을 수 있다. 「2000년 4倍化計劃」이라는 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中共은 결여하고 있는 要素인 資本과 技術은 開放을 통하여 外國으로부터 導入할 수 있어야 했고, 종래의 硬直的인 經濟運用으로부터 벗어나 각종 生產要素를 융통성있고 效率的으로 活用하게끔 유도하기 위하여 市場經濟論理를 따르는 價格eme 카니즘도 접촉시켜야 했다.

中共의 經濟改革은 農業部門에서 生產責任 請負制를 도입함으로써 시작하였다. 이러한 農業부문의 改革에 따라 食糧生產이 78년이래 83년까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農業部門에서의 成功은 다른 부문에도 자극을 주게 되어, 84년 第12期 3中全會에서 「農村에서의 成功經驗을 都市工業部門으로 擴大하자」는 슬로건 아래에서 다른 부문으로 과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都市工業에 있어서 企業自主權이 擴大되었고, 報償制度가 채택되는 한편 國家의 과도한 개입이 억제되게 되었다. 稅制面에서도 判例上納制에서 納稅制로 전환이 있었고, 製品稅, 附加價值稅, 營業稅, 鹽稅의工商稅 4稅를 신설하여 조세체계를合理화하는 한편 財政收入의 증대를 꾀하게

되었다.

후술되지만 金融面에서도 中央銀行으로서 中國人民銀行이 강화되고 여러 은행이 支店을 넓혀가고 專門銀行의 役割分擔도 보여지게 되었다.

對外去來面에서는 美國이나 日本 등 주요 資本主義國家들과의 무역 확대가 추구되었고, 모택통시절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外資導入, 合營企業誘致, 外國과의 分離・協力도 시도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文化的 시도는 어디까지나 社會主義經濟를 생기있고 活力 있게 하는 데 있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여, 社會主義의 根本性格을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겠음을明白히 했다. 종래의 경직된 모델이, (i) 行政機關과 企業의 職責이 分離되지 않았다는 點, (ii) 垂直分割과 水平分割 사이에 장벽이 있었던 點, (iii) 企業에 대한 國家의 統制가 과다하고 商品生產, 價格性別, 市場에 카니즘이 輕視되었다는 點, (iv) 分配面에서 심한 平等主義가 존재하였던 點 等의 폐해를 가졌음을 적시하고, 그 결과로서 “企業이 당연히 가졌어야 할 自主權을 결여하게 되었고 본래 활기에 차 있어야 할 社會主義經濟가 크게活力을喪失하게 되었다”고 진단하였으며 종래의 經濟運營이 지나치게 劃一的이라고 과악하였다. 나아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企業에 自由權을 부여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고, 이를 위한 方途로서 한편으로는 國家와 全民所有制 企業의 올바른 關係를 확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企業과 從業員 사이에서 勤勞者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方案을 택했다.

企業活動의 源泉이 勤勞者의 적극성과 지혜와 창조력에 있다고 파악하고, 이것은 勤勞者가 主人이라는 지위가 보장되고 그것이 物質的인 利益과 결부된다면 충분히 발휘된다고 보았으며, 이 點이 農村에서의 改革經驗에서 實現되었다고 인지했다.

계획체제의 개혁에서는 計劃經濟와 商品經濟를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종래의 通念으로부터 벗어나, 社會主義經濟가 “公有制를 근거로 하는 계획적인 상품경제”라는 점을 明示的으로 천명하므로서, 계획경제의 실행과 價值性別의 運用 및 商品經濟의 發展이 서로 배타적이 아니고 統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中共經濟가 根本的으로 計劃的인 商品經濟이고 市場에 카니즘에 완전히 의존하는 市場經濟가 아니라는 점을 分明히 했고, 市場에 카니즘에 의존하는

부문은 一部의 農業, 부업생산, 일용잡화, 서어비스, 修理業 등 國民經濟의 補助的인 부문에 限定됨을 밝혔다. 計劃經濟이기 때문에 指令性計劃이 근간을 이루나 同時에 경제적 지렛대를 이용하는 指導性計劃이 그것을 補完해야 한다고 했고, 改革의 과정에서는 指令性計劃의 범위를 적절히 축소하고 指導性計劃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종래의 같은 종류의 상품에 대해 品質의 差異에도 불구하고 價格差가 없었던 점, 상이한 상품의 가격비율이 不合理했던點, 특히 일부 광산물과 원자재의 가격이 너무 낮았다는 점, 농업 및 부업 생산물과 관련하여 價格支援에서 副作用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반성하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價格體系를 改革하는 것을 急先務로 택했다.

동시에 財政 및 金融體制를 개혁하고, 價格·租稅·融資 등의 경제지렛대를 운용하여 經濟活動을 지도하려고 했다.

農村에서 실시되어 成功한 請負責任制의 경험을 도시의 企業에도 도입하여 工場長(社長)을 中心으로 하는 經濟責任制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를 위하여 한편으로는 國家의 方針 및 政策의 관철을 향한 思想 및 政治工作을 충분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企業從業員의 임금 및 상여금을 기업내 經濟效率의 向上과 連動시키므로써 勞動에 대한 分配를 확실히 하려고도 했다.⁽¹⁾

對外關係에 있어서는 獨立自主, 自力更生, 平等互惠, 相互信賴에 기초하여 經濟協力과 技術交流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다. 이를 위하여 對外貿易體制를 융통성있게 改革하고, 外國經濟기술의 교류와 협력의 규모를 적극 확대하며, 經濟特別區의 운영과 연해 항만도시의 개방에 더 한층 노력하려고 했다. 또한 外資를 이용하는 것이 中共의 社會主義經濟를 위해 必要하고도 有益한 補完策이라고 보았다.

對外開放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中共은 4개의 經濟特區를 설치한 데 이어 14개의 항만도시를 개방하였다. 이를 통하여 對西方 經濟協力의 창구를 마련하고, 長期的으로는 이것이 홍콩이나 마카오 등을 吸收할 수 있는 완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했다.

(1) 이를 正當化하기 위하여 均等主義思想은 마르크스主義의 科學的 觀點과 對立되지 않으며, 일부 人民을 풍요롭게 만드는 政策이 全社會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經濟特區의 특징중의 하나는 市場經濟를 主로 하고 計劃經濟를 從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經濟特區내에서는 다른 곳에서와 다른 價格이 形成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公으로 決定되는 計劃價格, 이러한 中心價格으로부터 일정한 폭을 가지고 浮動할 수 있는 變動價格, 市場에 카니즘을 따르는 自由價格 중 特區에서는 自由價格이 적용되는 것들의 比重이 높아지고 있고, 또 計劃價格에서 自由價格으로 이행해 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小林熙直, 1986)

더불어 特區內에서 生產活動을 하는 企業이 대부분 外資에 의하여 經營되고 있고 이러한 企業들이 모두 市場狀況에 상응하여 經營을 하고 있기 때문에, 特區내에서는 國營企業과 集團企業들도 市場에 적응하면서 경영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나아가 特區가 대외적으로 開放되어 있다는 사정에 의해 特區內의 價格體系가 國際市場의 價格體系와 乖離를 가질 수가 없게 됨에 따라 特區의 價格은 中共 内部의 價格과 차이를 가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特區의 價格이 中共 内部의 價格과 차이를 갖게 되는 과도기에 있어서의 物價決定方式을 보면 다음과 같다.

- i) 식량, 유류, 돼지고기 및 수산물의 가격은 市(特區의 政府)가 관리하고, 그밖의 것은 擔當企業이 決定하며,
- ii) 生必品中 公定價格으로 공급되는 것은 市가, 變動價格으로 공급되는 것은 20~25%의 범위내에서 담당회사가 결정하며,
- iii) 自國產 工產品의 가격은 一部는 市가, 다른 一部는 관련회사가 市場狀況을 감안하여 決定하고,
- iv) 輸出하는 製品의 가격은 生產會社 또는 貿易會社가 價格을 決定하고,
- v) 計劃에 기초하여 輸入, 分配되는 기자재의 價格은 計劃價格으로 판매되고, 계획외에서 수입되는 農機械, 化學肥料, 농약, 종묘 등은 기준가격의 20%이내에서 비용변동을 감안하여 담당회사가 결정한다.

이를 볼 때 우리는 主要 物資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市當局이 決定하도록 하나, 점차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므로써 自由價格이 적용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하여, 홍콩·마카오의 價格體系와 가까워지게 되도록 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經濟特區에서의 賃金도 中共内部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81년 1월부

터 시행된 改革에 따라 賃金을 基本給과 變動給의 合으로서 규정하고, 基本給은 內部에서와 同一한 分類基準, 同一한 水準이 되게 하나 變動給은 기본給의 110~115%에 해당하는 工業區手當이 추가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特區의 임금이 內部의 그것의 2.1~2.15배가 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同一級의 勞動者에 대해 基本給은 같지만 工業區手當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의 지급액은 會社와 個人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能率에 따른 이러한 差別化의 努力에도 불구하고 中共經濟의 根本性格上 差別化의 정도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平均主義를 탈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特區에서의 經濟活動을 充實化하기 위하여 中共은 1984년 7월 深圳特區中央銀行을 설치, 정식으로 영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① 特區通貨의 발행과 관리, ② 자금의 관리, ③ 外貨의 統一的 관리, ④ 金과 銀의去來, ⑤ 國債의 發行과 兌換, ⑥ 금융기구의 설치와 관리 및 금융기관 영업활동에 대한 지도·감독·검사, ⑦ 金融設計의 作成과 發展 등 中央銀行이一般的으로 영위하는 모든 業務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特區 中央銀行은 國際的인 金利의 변동에 대응하여 變動金利制를 적용하는등 中共內部와 다른 金利政策을 시행하기로 하고, 外國銀行이나 合作銀行으로부터 借入을 하고 이들에 대부도 하며, 特區의 會社에는 물론 中共의 國營企業이나 集團經營企業에게도 外貨를 대부하고 있다.

特區에서 발행된 特區通貨는 홍콩달러등과는 兌換이 인정되나 中共의 元과는 兌換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外國系企業의 각종 支拂方式이 外貨로 의무화되어 있고 특정한 몇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을 위해서는 외화가 우대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狀況에서도 사실상 홍콩달러등 外貨가 特區通貨보다 選好되고 있다.

中共의 經濟改革은 經濟特區에서 가장 현저히 실체화되었다고 하겠으나, 그始發은 農村과 地方에서 個人的 이익을 추구하게끔 自由市場領域을 허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經濟特區에서의 變化가 다시 中共 內部에 어떤 형태이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自由營農 등을 통해 얻게 된 農村과 地方에서의 저축을 吸收하여 각종 企業에 대부하는 仲介機構로서 工業銀行내지 商業銀行이 必要하게 되어 中共全城에 20,000개 이상의 銀行 支店이 나타나게끔 되었고 이들을 감독하고

利子率 및 通貨供給 등 規制해야 할 中央銀行으로서의 中國人民銀行의 活動도 활발해지게 되었다.

1985년부터는 모든 銀行이 그들 預行의 30%상당을 資金코스트의 절반정도인 3~4%의 利率을 받고 中央銀行에豫置하게끔 强制되었고, 同時に 銀行間市場이 허용되어 “貨幣市場”(money market)의 초기 형태로 보이게 되었다. 머천론·뱅크, 信用組合, 保險會社 등 非銀行金融機關도 도입되어 金融仲介를 담당하게 되었고, 1984년 등장한 株式市場, 債券市場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²⁾, 形式的으로는 각종 資本主義的 貨幣金融制度를 거의 갖추게끔 되었다.

그러나 個別企業의 次元에서企業의 請算이나 勞動者의 解雇가 不可能하기 때문에 한번 잘못된 貸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을回收할 길이 없어 사실上 不實企業에 대한 非自發的 貸與가 계속된다는 弱點내지 사각지대를 지나고도 있다.⁽³⁾

그리고 이러한 不動資產이 銀行貸付중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할 정도로 크다는 관찰까지 있었다.

中國共產黨은 國共對立에서 그들이 勝利하게 된 原因으로서 前任 政權의 무능과 부패를 가장 중요시하였고, 무능과 부패를 가져온 要因으로서 인플레이션을 제일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最大의 課題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갖가지 經濟改革措置, 특히 經濟開放이 인플레이션이 없는 經濟成長을 보장하고 經濟的 不平等과 사회적 동요, 불안을 반드시 배제하게 된다는 것을 단순히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경제적인 풍요와 성장을 지향하는 經濟改革에의 움직임은 근본적으로 모택동에 의해 대표되는 中國式 社會主義와 배치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經濟改革과 더불어 나타난 불평등과 사회적 불만이 종래의 정치체제 내지 관료주의와 결합되어 소위 반부르주와主義의 기치아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상당한 수의 정치지도층과 人民들은 마치 새로운 정치질서와 권력구조가 形

(2) 株式去來는 개인이 自由로이 할 수 없고 銀行의 매개를 통해서만 可能하게 되어 있다.

(3) 貸付資金의 상환을 하지 못해 나타나는 不渡가 많으나 이러한 不渡企業에 대한 政府當局의 干與가 充分하지 않은데, 그 理由중 하나는 不渡處理를 위한 法制가 未備되어 있다는 것이다.

成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개혁의 여파로 기존의 질서가 깨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市場經濟化過程에서의 分權화가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經濟·文化的인 利益을 줄이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市場經濟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과 政治的 統一의 必要때문에 회 일적인 관료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널리 요망된다는 이러한 사정이 계속해서 中共의 經濟改革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로 되고 있다.

1978年 經濟改革 이래 인플레이션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9 ~1984年 平均 小賣物價上昇率은 年 3.1%에 이르렀고, 1985年에는 8.8%에 까지 上昇하였다. 外國人們은 中共의 7次 5個年計劃期間(1986~1990)중에 年 6~10%의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Euromoney, 1986b)

최저생활을 해결하자 사치에 눈을 뜨게 되어 냉장고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의복·장신구 등에 대한 수요가 팽배하고 있다. 일부 당간부를 중심으로 한 부패행위도 나타나고, 전환기중에 所得體系가 크게 달라져 “勞動者는 울고 農民은 웃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는 돈을 세고 지식분자는 불만에 차서 떠들어 댄다.”⁽⁴⁾는 등 과도기적 혼란을 보이면서, 貧富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한편 1986年 中共은 경제범죄가 전년에 비해 56%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을 반박할 좋은 구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農業改革의 초기에는 농민들이 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도 증산을 가져오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의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農業生產을 위한 投資를 증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러한 投資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증산의 텁포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게 된다. 中共의 양곡생산량이 1984년에 4억 7백 3십만톤에서 1985년에는 3억 8천만톤, 1986년에는 3억 9천만톤으로 차라리 정체되고 있음을 보인다는 점은, 투자가 불충분한 개혁이 초래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Lampton, 1987)

불충분한 投資를 위한 財源을 마련하는 데에는 中央政府의 지출증대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1984년 중앙정부는 그러한 지출을 지탱하기 위하여 農

(4) 朝鮮日報, 1986.5.20, 西風 10年の 中共大陸.

產物價格을 올리려고 했고, 이때 소비자와 都市의 企業經營者들은 모두 당황하고 반발하였다.

都市에서의 經濟改革을 위해서도 中央政府로부터의 改革補助金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정부지출의 요구는 재정을 어렵게 몰아가고 있다. 1987년 1월 5일자 北東리뷰는 “1986년 國家經濟는 成長했지만 企業들은 갈수록 정부재정을 축내고 있다. 1985년의 과도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출증가가 계속된다면 1986년 中共豫算은 赤字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1984년이내의 貿易赤字가 계속되고 있으며, 1986년중에는 外換保有高가 과소하게 되어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경제개혁이 불러일으킨 경제적 욕구와 그것을 실현하는 실체에 있어서의 차이는 파산법을 중심으로 하여 첨예하게 나타났다. 기업들이 경영에 실패할 경우 그 責任을 경영자에게 묻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끔 되는 것은, 企業들이 獨立的인 意思決定을 할 權限이 없는 상태에서 責任만을 지는 不公平한 것으로 인지되었기 때문에, 불평의 대상으로 되었다. 또 노동자들은 달리 갈 데도 없는 상태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크게 걱정하였다. 이에 따라 企業經營의 우열을 판별하여 效率的 經營을 시도해 보려는 파산법은 성립될 수 없었고, 不實이 잉태되는 상태에서 物價만이 오르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결국 改革은 개혁이전의 實物化, 閉鎖化, 平等主義化란 말로 표현되었던硬直된 社會經濟相을 융통성있는 것으로 바꾸어 보려는 것이라 하겠으나 傳統的인 行政調節과 새로이 導入한 市場調節 사이에 개재되는 근본적 모순과 마찰을 效果的으로 치유하지는 못하였다. 投資와 消費가 팽창하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일부 상품의 공급이 수요에 못미쳐 價格이 上昇하게 될은勿論, 通貨量이 급증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는 것도 피할 수는 없었다.

종래 行政優位의 體制運用메카니즘이 완전히 폐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경쟁적 시장체제를 구축하고 價格·換率·金利 등 價格變化를 이용하여 經濟活動을 조절해 보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간단없이 行政手段을 動員해야 할만큼 점진적 이행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示唆한다.

對外關係와 관련하여 우선 經濟特區를 活用하여 일단계로 草稿資金의 도

임을 도모하고, 다음에 기술, 경영관리방법, 정보도입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과다한 投資 및 誇示消費에 따른 輸入이 늘고 外換의 不法去來도 나타나 1985年 貿易赤字가 150억弗에 이르게끔 되었다. 이에 따라 輸出, 輸入에 대한 統制를 再開하고, 企業들이 外國에 진 빚이 政府가 보증한 것이 아님을 새삼 천명하며, 直接投資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는 등, 直接統制를 다시 공고히 하고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外換管理의 강도가 다시 강하게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III. 從屬理論의 觀點에서 본 中共의 經濟改革

從屬理論에서 종속이란 어떤 國家 또는 國家群이 다른 經濟의 발전이나 팽창에 의해 條件지워지는 사정을 말한다. 國際經濟社會에서 둘 이상의 國家 또는 國家群이 있다면 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은相互依存關係(interdependence)를 가지게 된은 당연하나, 종속(dependency)이란 이러한 상호의존관계가 雙方的・對稱的인 것이 아니고,一方的・非對稱的인 것이 됨을 적시하는 것이다. 둘 이상의 국가 또는 국가군이 國際貿易關係를 비롯한 제반 關係에 있어, 어떤 쪽은 자신의 추진력을 통하여 팽창하는 반면에, 다른 쪽은 종속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支配國膨창의 반작용으로써만 變化・擴大할 수 있는 종속적 관계가相互關係의 本質을 이루고 있음을 지칭하는 것이다.

종속은 몇몇 나라에서만 工業發展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을 制限하는 國際的인 分業展開에 그 發生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때 工業發展을 할 수 있는 나라가 中心部(center)가 되고 그러하지 못한 나라가 周邊部(periphery)가 된다.

資本主義의 發展過程에서 一次產品 내지 農產物의 生產者와 工產品 生產者 사이의 分業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나,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복잡한 不平等關係를 초래했다.(Santos, 1980) 資本所有의 集中, 世界市場의 支配, 소수 국가그룹의 貯蓄 및 投資機會의 獨占 등이 그러한 關係의 징후이며, 이러한 關係는 產業革命을 통한 生產力의 증강과 交通・通信分野에 있어서의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종속에 처한 나라들에 있어서 商品價格, 投資形態, 통화정책 등

경제운영과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決定들이 이들 國家 외부에 있는 個人이나 機構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外國의 支配的인 이익과 이해관계를 가까이 하는 내부의 계급이 나타나 “支配당하는 支配者”로서 처신하게 됨으로써 내부적인 마찰까지 노출하게 된다.

이러한 종속이론을 延長・擴大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왈러슈타인(I. Wallerstein)의 世界體系理論은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비대칭적인 상호관계 사이에서 위치하면서 상품의 구성, 임금 및 이윤의 추구에 있어 중심부에는 구조적으로 종속되지만 주변부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 반주변부(semiperiphery)의 생성을 주목한다. (Wallerstein, 1984)

1970年代初半까지의 사정을 근거로 하여 왈러슈타인은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그리고 반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행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戰略으로서 3가지를 제시한다.

첫번째 것은 기회포착전략이라고 성격지워진 것으로서, 예컨대 1930년대 초 경제공황이라는 여건에 따라 외부적인 규율이 이완되었을 때, 南美에서 자국내의 전통적인 과두계 부문을 누르고 工業化 選好의 發展志向의 세력이 나타나 輸入代替工業화를 시작하게 된 것을 뜻하고,

두번째 것은 海外資本의 유치전략이라고 지칭되는 것으로서 韓國, 대만 등이 1960年初 자국에서의 瘦싸고 良質인 勞動力과 海外資本을 결합시키어 輸出志向의 工業화를 추진한 것을 뜻한다.

세번째 것은 社會主義圈에서 추진되었다고 보여지는 自立戰略으로서, 특이한 組織과 動機를 갖고 있음이 특히 유념되는데, 中共의 경우가 代表的인 예로 되고 있다.

아물든 本考의 性格으로 보아 세번째 自立化戰略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우선 주목할 것은 두번째 海外資本의 誘置戰略을 택한 대만, 싱가포르 및 한국 등이 輸出志向 生產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世界經濟秩序에 統合된 데 반해, 세번째 戰略을 택한 中共은 이러한 統合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自力開發을 강조해 왔다는 점이다. 外債를 금기로 하는 보수적인 국제금융 정책을 고수했고, 기술에 있어서도 外國의 民間企業이 개발한 기술을 수입하기보다 고유의 기술능력을 개발하는 데 더 큰 資源과 努力を 배분하여 왔다.

內的으로 資源을 조달하려다 보니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 및 投資를 장려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저축성향이 높은 中產層을 育成하기 보다 견 소한 생활과 타인에 대한 도움을 미덕으로 강조함으로써一般的消費抑制를 이끌어 보려고 하였다.

린(Panl T.K. Lin)⁽⁵⁾에 의하면, 中共은, 平等主義, 歷史的으로 펍박을 받아온 地域과 階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福祉의 실현, 대중이 참여하는 文化·藝術의 창달, 實學的 및 生態學的인 健全한 環境의 유지를至上價值로 삼고, 이러한 價值가 政治를 지배하고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며 경제가 기술을 지배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특이하게 보이는 自力開發의 패턴을 보여 주었고, 이로써 주변으로부터 헤어나는 데 상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中共의 經濟改革 이전의 中共經濟에 대한 이상에서와 같은 理解를 상기하고 볼 때 中共의 1978년 이래의 經濟改革은 傳統的 自立戰略을 버리고 부분적으로나마 해외자본의 유치전략으로 戰略을 바꾼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보았지만 中共은 計劃工作을 주로 하고 市場調節을 從으로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市場의 價格變化를 互視經濟的 政策手段, 通訊政策이나 財政政策을 가지고 (이러한 手段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해 가면서) 間接統制하려고 하며, 이러한 間接統制가 不充分한 때에는 언제든지 直接統制를 한다는 原則을 천명하여, 상이한 두가지 체제가 가져오는 알력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効力이 반드시 成功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두가지 體制가 混在함으로써 二重性이 보여지고 많은 마찰과 딜레마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앞에서 적시된 최근의 현상으로서 당간부 및 그 가족들의 부패, 企業의 부실화 및 그것과 관련된 金融機關의 不實化, 소비풍조의 만연, 심화되는 所得分配面에서의 격차가 모두 전에는 없었거나 적어도 현저하지는 않았던 현상이나 최근에 들어 심각하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3차가 보기에는 中共은 自立化戰略을 통해 반주변부의 위치를 정하면서 發展해 나아가고 있으나, 그러한 自立化戰略이 中共의 實用主義勢力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된 바 副作用을 감수하면서

(5) Panl T.K. Lin “Development Guided by Values Comments on China’s Road and Its Implications,” 변형윤 김대환 편, 제3세계의 경제발전에서 인용.

도 自立化戰略과 구별되는 海外資本의 導入戰略을 加味하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中共의 선택은 그 확률은 낮지만 中共을 변화시키어 종속에 이르게까지 할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開放과 海外資本의 導入이 종속을 초래하는 과정을 점검하고 그러한 一般的 폐턴이 이미 상당한 自立化 戰略의 歷史를 가진 中共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면서 展開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必要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참고로 할 것이 종속이론에서는 종속의 유형을 몇가지로 분류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類型 分類는 대체로 종속의 처지에 빠져 있다고 여겨지는 南美諸國의 歷史的 變遷에 대한 관찰과 관조에서 우리나라온 것인데, 주된 현상으로서 비교우위론과 결부된 一次產品의 輸出, 輸入代替, 그리고 多國籍企業의 활약을 촛점으로 하고 있다.

一次產品의 輸出이 代表하는 첫번째 유형에서는 설탕, 커피, 코코아 등 農產物이나 銅, 석탄, 석유, 보크사이트 등 鎳產物을 생산 또는 추출하는데에 植民地 또는 半植民地의 傳統을 가지고 投資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一次產品을 中心部에 輸出하여 外換을 얻은 다음, 그것으로 中心部에서 생산된 사치품등 消費財를 輸入한다.

이때 一次產品 生產에 참여하는 勞動者는 단순노동을 제공했을 뿐이었기에, 기술발전을 통한 生產性向上의 可能性을 실현할 수 없었다. 한편 所得不平等이 심해지고 상위층의 消費폐턴을 지탱하기 위하여 상당한 輸入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一次產品의 輸出로부터 얻은 資金을 가지고 착실하게 經濟開發을 펴 나가는 데 성공할 수 없었다.

輸入代替政策과 관련된 두번째 類型은 中心部의 代理人 및 주변부 토착 엘리트가 소비하던 輸入商品을 國內에서 제조하려는 데서 발단되었다. 심한 소득불평등의 상황에서 그나마 成長하는 需要是 소유부유층의 수요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시키는 生產체계를 마련하게 되지만, 이러한 生產을 위해서 설비, 부품, 中間投入物 및 때로는 原料까지 輸入할 수 밖에 없어 外換不足이 심화되었다. 그 여파로서 빈곤한 대중을 위한 식품, 기초의류, 주택, 의료 등을 생산할 시설을 마련할 기회가 앗겨가 버렸다.

이때 도로, 학교, 병원 등 社會間接資本이 造成되고,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도 했으나 根本的으로 輸入代理生產體系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득의 不平等과 그에 따른 集中된 消費 패턴이 必要했고, 이것과 관련된 生產技術은 資本集約的인 性格을 갖는 것이었기 때문에, 輸入代替의 努力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經濟에는 큰 實質的인 變化가 없었다.

세번째 유형은 다국적기업의 활동과 결부되어 있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많이 관찰되는 경우라고 여겨지는 것인데, 다국적기업이 주변부에 공장을 세우고 중심부에서 쓰이던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기술의 資本集約性 때문에 주변부의 雇傭은 더욱 어려워지고, 토착생산에 구축되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경우이다.

이상의 3가지 형태중 中共의 經濟開放과 관련을 가지는 것은 세번째 유형인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所得分配가 惡化되고 있다는 최근의 사정이 이러한 유형과의 관련성을 근거지운다.

즉 輸出을 늘이기 위하여 外國資本의 도입을 피한 것이 輸入을 유발하게 되고, 특히 화물수송, 특히권 사용료, 기술원조 등과 결부된 서비스의 수입에 따른 外換支出이 여기에 부가되어, 國際收支赤字를 가져 온다. 이때 기계와 원자재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중심부로부터 제공되는 기술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국제수지적자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한 후 이러한 국제수지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外資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또 投資를 擴充하기 위하여 外資를 도입하게 되어, 금융적 종속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게도 된다.

1985년 貿易赤字가 150억불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中共에도 이러한 금융적 종속의 씨앗이 심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 이에 즈음하여 貿易과 外換統制를 강화하고 外國人 投資의 適合性을 더욱 엄밀히 검토하며 國內에서 영업을 하게 될 것으로 1984년 약속되었던 香港은행, 西아세아銀行 등이 아직까지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등이 中共이 이러한 씨앗을 미리 除去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外資의 導入과 더불어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成長의 停滯와 分配의 惡化중前者는 중공에서 관찰되지 않고 있으나 後者는 中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決定的인 問題는 이러한 外資導入과 開放의 영향이 中共內

에서 自立化戰略과 더불어 존재하던 生產構造와 社會制度를 歪曲시키고 마비시키게 까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알려진 여러가지 情報에 따라 짐작해 본다고 할 때, 中共의 經濟開放은 앞으로도 混亂이라고 성격지울 수 밖에 없는 많은 문제거리를 초래하겠지만, 中共의 社會制度를 마비시키어 현재 半周邊部로 인식되는 中共을 주변부로 전락시키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 中共의 經濟改革과 經濟開放을 추진하는 實用主義 세력이 이러한 것이 가져올 부작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이것이 기존의 計劃經濟를 補完하는 경우와 범위내에서開放을 추진할 것이라는 點이다. 中共의開放의 속도조절은 전적으로 中共에 의해 결정되고 外部와 거의 獨立的인 바, 위에서 본 1985年の 폐해에 임하여 1986년이래 별씨開放을 유보하고 개방속도를 늦추는 정조가 보인다는 것이 이를 증거한다.

둘째, 中共에는 아직도 實用主義者들의開放政策에 반대하는 세력이 상당하며,開放이 큰 부작용을 가져 올 경우에는 이들이 즉각 반격할 정조가 보이고 있으므로, 實用主義의開放戰略은 아주 신중히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세째,開放의 대상이 된 4개 경제특구나 14개 항만도시는 中共經濟全體에 비추어 매우 작은 부문이며, 成功的인 經濟改革의 증거인 自營營農도 상대적으로 연약한 土地에 근거를 둔 農業部門의 작은 部分에 限定되어 있기에, 이러한 작은 部分으로부터의 영향이 큰 全體를 좌우하게 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보아서는 40년의 뿌리를 가진 自立化的 振興이 10년의 짧은 시간동안 限定된 部分에 걸쳐 시행된 實用主義의 實驗에 의해 혼들리게 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IV. 中共改放의 第3世界에 대한 示唆

中共이 自由化戰略에 의해 반주변부로 도약할 수 있었다면, 브라질, 멕시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포르투칼, 그리스 등 소위 新興工業國은 世界資本主義體制의 一員이 되는 資本導入과 輸出主導型 成長戰略에 의해 반주변부로 지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중 後者인 新興工業國들은 1980年代에 들어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資本導入을 위해 成長을 피해 보려던 것과 1970年代의 國際經濟與件의 변화가 합쳐져 이들의 일부에게 상당한 外債를 지게 했는데, 1980年代에 들어 이들 外債國은 外債를 상환해야 한다는 요구와 그것을 상환하기 위한 資源 마련을 위한 길을 봉쇄당하고 있다는 사실사이에서 고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1970년대에 있었던 변화란 두차례에 걸친 石油波動, 유러金融市場의 還流, 1980年중의 汎世界的 인플레이션과 1970年에 들어서서 나타난 인플레이션의 급속한 냉각, 1970年代의 國際金融市場의 適應과정에서 나타난 1970年代 中盤까지의 負債지 零의 實質利子率과 1980年에 들어 나타난 바 非正常的으로 높은 實質利子率의 충격 등등이다.

또 新興工業國중一部만이 外債國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經濟規模 등으로 보아서 브라질, 멕시코, 한국 등이 新興工業國을 代表할 수 있는 나라이며, 아직 신흥공업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슷한 性格을 가진 準新興工業國으로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기타 南美의 諸國 등 상대적으로 나은 開發途上國이 外債問題를 안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外債問題는 반주변부와 주변부 모두에 대한 심각한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外債國은 商業銀行인 多國籍銀行의 金融仲介行爲를 통하여 外債를 지게 되었는 바, 이들 商業銀行은 預金받은 資金을 貸出한다는 의미에서 자기자금을 대출한 진정한 債權者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망하지 않고 그래서 國際金融制度가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外債國의 外債償還이 절대적으로 必要하다.

그런데 外債國이 그의 債務를 갚기 위해서는 貿易收支黑字를 시현함으로써 상환에 쓸 資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근자의 先進國의 新保護貿易主義의 각종 형태 때문에 이들은 무역수지흑자를 실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다국적은행들이 중심부의 銀行產業(banking industry)의 기구라고 할 때 중심부의 은행 산업을 위해서는 外債國이 무역흑자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중심부의 고용보호, 특히 製造業(manufacturing industry)의 利益 때문에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고 있음을 상기하면, 중심부의 제조업부문을 위해서는 外債國이 무역흑자를 실현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볼 때 外債國인 半周邊部는 中心部의 銀行產業과 製造業 사이의

모순에 끼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고통으로 부터의 解放을 위해서는 중심부에서의 矛盾의 解決이 先決되어야 하겠음을 추론할 수 있다.

중심부에 있으면서 최근 가장 보호무역주의적 쳐신을 하고 있는 美國이 중심부의 중심국으로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리더쉽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되어야 하고, 이러한 美國의 무역적자는 같은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이는 日本과 西獨과의 政策調整을 통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부는 마땅히 그 内部에서 각국의 고용문제 등을 고려하여 국제수지의 패턴의 변화를 피하되, 그러한 변화의 결과가 중심부 전체로서는 外債國인 반주변부에 대해 무역적자를 지니게끔 되어야, 중심부의 銀行產業의 붕괴를 막고 國際金融危機를 防止하게 됨은 물론 중심부의 제조업의 고용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987년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중심부내에서의 政策調整, 또는 중심부의 중심인 美國의 리더쉽은 이러한 大局的 必要를 充足시키고 있지 못한 듯하다. 美國도 日本과 EC市場의 開放을 요구하고 또 이를 통화와 달러사이의 換率을 조정하는 등 努力を 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努力은 중심부 내부의 問題 내지 그것이 제기하는(外債國과 관련된) 大局의 矛盾을 극복하는 데에는 별로 큰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한편, 반주변부는 주변부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나 중심부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종속되고 있다는 認識을 상기할 때, 중심부의 이상과 같은 無氣力狀에 접하여 반주변부 스스로 問題를 解決할 길이 있으리라고는 쉽게 예견할 수 없다.

반주변부는 종래보다 더 한층 自助(self-help)에 努力하고, 반주변부와 주변부 사이의 協力에 애쓸 수 있을 뿐이겠는데, 이러한 次元에서 中共의 經濟開放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첫째, 自立化戰略을 추구하던 中共이 開放化戰略을 加味하여 종래의 自立化戰略을 修正・補完한다 함은 반주변부의 발전과정에 대한 보다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종래 開放化戰略을 주전략으로 하던 반주변부에 대해, 특히 自助를 강화해야 할 時點에 있어, 현재 큰 어려움과 모순에 처해 있는 開放化戰略을 修正・補完하는 데 참고될 수 있는 많은 資料를 提供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中共이 開放化戰略을 가지고 있던 반주변부그룹에 참여한다는 것은 반주변부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南南協力이 보다 充實해질 수 있게 되고, 중심부와의 交涉에서 교섭력을 들이는 데에도 기여하게 된다.

세째, 반주변부의 一員이 되 보통의 반주변부국가가 아니라 그야말로 大國인 中共의 대두와,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體系에의 參與는, 반주변부와 주변부에 속한 여러나라에게行動의 幅을 넓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심부—주변부의 종속관계가 美國이외에 유럽과 日本이라는 核이 중심부에 나타나게 됨으로써 주변부의 국가들에게 다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을진대, 중공의 출현은 그것이 비록 반주변부의 一員이라고 해도 반주변부 이상의 核도 될 수 있겠기에 여타 주변부국가의 행동변경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네째, 그러나 短期的으로는, 중공이 開放化戰略을 택하고 중심부가 大局的矛盾을 미처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타 주변부 국가와 輸出競爭, 資本借入競爭 등을 하게 됨에 따라, 이에 開放化戰略을 택하고 있던 半周邊部國家에게 負擔이 될 수도 있다.

V. 餘　　言

經濟開放을 하다 종속에 이르게 되는 經濟는 보통 작은 經濟이기 십상이다. 그러나 中共은 우선 人口만을 보아서도 작은 經濟라고 할 수 없겠기에 中共의 經濟開放을 從屬과 연결시키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多樣化 時代 내지 情報社會化 時代에는 종래의 전통적 양식의 從屬은 따라오기가 어렵다.

그러나 급속한 技術發展과 갖가지 종류의 貿易이 확대되게 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종속이 가능하게 될 수는 있다. 특히 최근 國際經濟社會에서 강조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비스의 自由化나 資本自由화와 더불어 새로운 방식의 종속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서비스 自由화의 일환으로 金融自由化가 이루어지고 또 情報產業의 自由화가 이루어지게 된 다음에는, 開發途上國은 새로운 형태의 사실상의 종속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中共도 濟經開放의 일환으로 外國銀行의 支店을 인가하면서 金融自由화의

方向으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이러한 金融開放의 움직임은 情報產業의開放을 동반할 염려도 있다. 中共의 技術水準이 첨단산업분야에서 현저하지 못하다고 여겨지고 있고, 또 中共이 각종 金融機構등 資本主義的 制度에 서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中共은 다른 開發途上國보다 차라리 취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中共은 大國이면서 開放의 폐해를 억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反轉시킬 수 있는 自體能力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또 서비스自由化등 對外去來의 自由화로 인해 어떤 經濟가 받게 될 영향은 어떤 經濟의 對外去來의 比重이 크고 대외거래로 직접 영향을 받는 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이 同質的일수록 클 터인데, 中共은 아직 상대적으로 작은 對外去來를 유지하고 있고 對外去來의 영향을 받는 經濟特區와 内部가 상당히 異質의이기 때문에, 對外開放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게 될 것이다.

中共의 장년세대는 政治에 統一을 달성한 이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作業이었던가를 새삼 느끼고 있는듯 보인다. 이들은 經濟的인 풍요보다 政治의 統一이 매우 중요하다는 判斷을 할 수도 있다. 반면에 中共의 青年世代는 다른 나라의 청년세대처럼 物質的欲求를 상당히 중요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政治的 統一을 경시하는 반면에 차후에 이루어 보려고 하는 經濟的 發展을 重視할 여지가 많다.

中共의 經濟開放의 장래는 이러한 世代間의 認識의 差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經濟開放으로 청년세대의 욕구가 더욱 현저해지게 되고 그러한 욕구를 마음껏 充足시킬 수 없음도 알려지게 될 터인데, 이때의 대응이 어떤 混亂을 가져올 것인지 또는 長老年世代의 도움을 받거나 받지 않는 상태에서 中共의 實情에 맞게끔, 다른 開發途上國보다 훨씬 속도가 느리고 順序도 다를 수 있는 經濟自由화와 經濟充實化를 추진할 수 있을런지는 현재 예견하기 매우 어려운, 그러나 우리에게는 매우 重要한 事案이 되는 關心거리라 할 수 있겠다.

參 考 文 獻

高橋滿

1986 “中國 經濟改革의 論理와 課題,” 安錫敘 編, 中共經濟의 政治經濟學, 比峰出版社,

小林熙直

1986 “經濟特區와 中國의 開放政策” 安錫敎編, 中共經濟의 政治經濟學, 比峰出版
社,

外換銀行月報

1985 中共의 經濟改革과 對外開放, 5월

李奉錫

1986 “Economic Reforms in Post-Mao China,” 제 2 차 國際韓國人經濟學者學術大
會 論文集.

日海研究所

1987 “2000年代의 中共: 세계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美國企業研究所(AEI)
共同세미나, 信用經濟 5.

全國經濟人聯合會

1986 中共 現代化計劃의 成果와 課題, 東西經濟研究官

Lampton, David

1987 “中共의 앞날과 改革政策” 信用經濟 5.

Santos, T.D.

1980 “발전론의 위기와 종속의 문제”, 변형윤, 김대환 편역, 제 3 세계의 경
계 발전,
까치글방

Wallerstein, I.

1984 “브라질의 민주주의를 좌절시킨 경제적 요인들” 한상진 편저, 제 3 세계의 경
제 체제와 관료적 권위주의, 한울출판사,

Brandt, Willy

1986 *Arms and Hunger*, Pantheon Books, New York,

Chase-Dunn, Christopher K.

“Korean Dependence on Foreign Firms and Banks in Comparative Perspective,”
a conference paper as above.

Euromoney

1986a “The Long March out of Asia,” April

1986b “Bankers begin to get out of the rat,” June

Foster-Garter, Aidan

“Standing up: The Two Korean States and the Dependency Debate-A Bipartisan
Approach,” a conference paper as above.

Fransman, M.

1985 “Conceptualizing Technical Change in the Third World in the
1980s,” An Interpretive Survey,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July

Griffin K.B. & Enos, J.L.

1970 “Foreign Assistance: Objectives and Consequenc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April

Kurtenbach, Elaine

- 1985 "Diversification and Integration of China's Rural Economy," East-West Center, Resource Systems Institute Working Paper WP-85-26.
- Park, Tong Whan
1985 "From Dependent Development to Dependency Revers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Examination of NICs' Growth," a conference paper at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The Economist,
1986 "Where the Old Man Goes," 31 May-6 June.
- White, G.
1984 "Developmental States and Socialist Industrialization in the Third World,"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October
- Wilson, D.
1986 "China's Banks Learn a New Game," *The Banker*, August